

중국, 영국 BP 지분 1% 매입

CIC, 19억7000만달러에 인수 ... 해외기업 인수 적극적

중국이 프랑스 석유기업 Total에 이어 BP(British Petroleum)의 지분도 사들였다.

중국투자공사(CIC)가 BP 지분 1% 가량을 19억7000만달러에 매입했다.

중국 자본의 유럽 석유기업 지분매입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Total 지분 1.6%를 매입한데 이어 2번째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영국 최대기업인 BP의 대변인 데이비드 니컬러스는 중국투자공사의 지분매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조68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해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알루미늄은 세계 3위 광산기업인 리오턴토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지분 12%를 인수했다.

또 중국투자공사는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중국의 해외 에너지기업 인수는 보유외환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는 한편으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6>